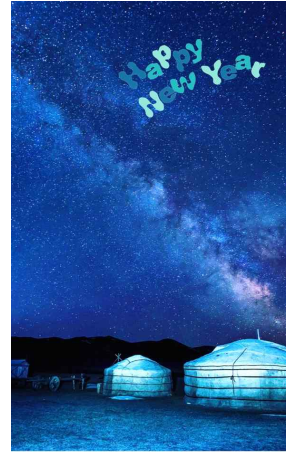


#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2019 사역 소식 및 2020 새해 인사

2019년의 마지막 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9년 한해동안 이곳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사역과 저희 가정을 위해 사랑과 간구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모두 아버지의 은혜로 이곳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1. 현지 공동체

벡뚜르 담임목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를 참 잘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디아나 사모 역시 네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신학교에서의 강의와 번역팀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모든 가정 그룹과 청소년 그룹,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한해동안 배우고 깨달은 내용, 그리고 감사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부터 주신 은혜에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선물을 서로에게 나누지 않고, 우리는 이미 아버지에게서 받은 셀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여 이 날 처음 참석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는데, 아주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림이 이들 가운데 있기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성탄 예배 때에는 이웃을 초청해 오기로 했는데, 10여명 이상이 초대되어 함께 예배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현지인 직원의 동생 부부를 초청하였고, 드림아카데미에 다녔던 대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공동체의 예배와 환경에 처음 접하는 이들로서 조금 걱정은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모임에 만족하며 참석하고 돌아갔습니다. 공동체에서 준비한 성탄의 말씀과 연극, 다양한 발표회를 통해 세상 어느곳에서도 볼수 없는 분위기와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큰 도전과

작년에 비해 훨씬 성장한 모습으로 전체 모임을 준비하고 진행한 공동체의 팀 리더십과 학생회, 가정소그룹 모임의 모든 이들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아지고 전체 숫자도 늘어서 이제 아이들을 포함하면 거의 60여명은 늘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인원이 되니까 주일학교, 학생회와 그룹모임들이 잘 구성되어 운영되고, 섬기는 이들도 훨씬 안정적으로 섬기고 함께 협력하며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해 주신 열매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지난해까지 수업과 학교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한국인 사역자 부부가 올해 초 건강상 이유로 한국으로 갑자기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분은 다행히 수술도 잘마치고 회복상태도 좋아지고 있어서 새해에 다시 키르기스로 복귀하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합류한 한국인 사역자들 두분도 수업과 학교 분위기에 잘 적응하시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다양한 발표회를 가졌는데,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모두에게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되었고, 서로 반이 다른 아이들끼리도 더 잘 알수 있는 기회와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드림아카데미의 가족적인 분위기와 따스함을 표현했고, 고려인협회의 임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드림아카데미를 통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 모두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한명의 한국인 교사가 학업의 이유로 빠지게 되고, 또 다른 한분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인 교사 한명은 내년 3월부터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교사들의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도 모두들 수업을 잘 조정하여 드림아카데미의 수업의 질을 유지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거쳐 다른 진로를 택하여 가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새로이 합류하는 분들에게도 드림아카데미에서의 시간들이 귀하고 의미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소망의 집"은 지난 여름동안 남, 녀 숙소를 분리했고, 두 번째 숙소에 샤워실과 간이 주방을 만들어 공간 사용에 편리함이 조금씩이나마 더해지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고도 거의 수리가 되었는데 알콜 중독자 숙소와 작업실로 나누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독에서 회복되고 이곳 공동체에서 삶의 활력을 찾아 이제는 일도 배우고, 자력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체제가 조금씩 갖추어 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자 알렉산드르 목사의 신실한 섬김과 운영으로 2년동안 지나면서 막연한 소망이 이제 좀더 구체적인 소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곳 없었던 노숙인들, 알콜 중독으로 무너져가던 건강과 심리적인 상태에서 이곳에 연결되어 소망을 찾고 건강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이 공동체가 진정으로 "소망의 집"이 되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약 주석번역 사역** 9번째 책(옥중서신)이 마지막 읽기 감수 작업을 거쳐 다시 편집자에게로 넘겨서 편집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9년전에 시작된 신약주석번역 작업이 초기 번역, 도서 편집디자인 작업, 신학감수 작업, 읽기 감수 작업을 거쳐 한권씩 인쇄되어 나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총 13권 중에서 9권째의 인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팀장인 호주 사역자는 이제 70대 중반에 접어드는 연세에 지난 수년동안 골반 수술도 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1~2년 후 은퇴하기 전에 최대한 마무리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데, 로빈 교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헤브론, 김엘레나 드림